

We start a new teaching series today, diving into a unique and rich section of Scripture known as the *Songs of Ascent*, Psalms 120 to 134.

Jewish pilgrims used to sing these psalms during their journey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to worship. The hymns helped shape the identity and faith of God's people. And, they were deeply formative for Jesus.

When we read in Luke's Gospel of a young Jesus going to worship at the Temple with his family, these were likely the songs they sang, especially during the pilgrimages for Passover and the other festivals.

They are as relevant for us today as they were then.

Why? Because the word "ascent" in Hebrew refers to "going up," in both a literal and figurative sense.

Jerusalem sits on a mountaintop, so pilgrims physically traveled upward. Check out these pics: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성경의 독특하고 풍부한 부분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유대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 시편들을 노래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신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예수님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린 예수님이 가족과 함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장면을 읽을 때, 그들이 이 노래들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다른 절기 때의 순례 기간에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 시편들은 그때만큼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어로 "올라감"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서 순례자들은 실제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PIC 1 ([here](#) and on PCO)

PIC 2 ([here](#) and on PCO)

PIC 3 ([here](#) and on PCO)

But “going up,” also signifies a spiritual ascent  
— moving together toward God in worship.

So, these Psalms are like a playlist for that journey.  
They capture the essence of what it means to travel through life together  
as God’s people.  
They are about where we go and how we get there.  
And they show us that God cares about the “where” and “how.”

### **The Importance of Time and Place**

Why does this matter to us?  
Why focus on ancient songs about Jewish pilgrimages?

Because God still cares about our destination *and* our journey.  
He’s concerned about where we end up AND how we get there.

The Songs of Ascent remind us that the geography of our lives  
— the literal places we inhabit, the seasons we go through,  
and the paths we take — these matter to God.

In Jesus’ world, the worshipping community and their pilgrimages  
were always tied to specific times and locations.  
For the Israelites, going up to Jerusalem was a concrete,  
physical act that held deep spiritual significance.

We share that with them, despite the differences of time and culture.

Our gatherings — our times of worship, our prayer nights,  
our meet-ups and Bible studies — they are all part of our “going up.”  
God is uniquely present in the communal spaces of our lives.  
And, He shapes us through rhythms of worship, community, and service.

하지만 “올라감”은 영적인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그 여정을 위한 '재생 목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인생을 여행하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디로'와  
'어떻게'를 모두 신경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과 장소의 중요성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유대인의  
순례에 관한 고대 노래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목적지와 여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 삶의 지리적 위치,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장소들, 우리가 겪는 계절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들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와 그들의 순례는 항상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이었지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문화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그 경험을 공유합니다.

우리의 모임들 — 예배 시간, 기도 모임, 만남, 성경 공부 —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올라감’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공동체적 공간에 독특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 섬김의 리듬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 **The Contagion of Modern Culture**

All of this matters more in a world that's increasingly detached from geography and physical presence.

We've diminished the concept of “going up” or journeying together.

We live in a culture that revolves around autonomous convenience. We can order anything, at any time, and have it delivered anywhere. We attend meetings virtually, and take in online services, from the comfort of our homes.

I admit. There are benefits to this convenience. I like them, too. But, they also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Our quest for convenience subtly erodes our social fabric — the bonds we share in our neighborhoods, and even our churches.

We risk forgetting that God works through time and place. We risk trading community for convenience.

We also risk sidestepping the journey, seeking efficiency and shortcuts whenever possible.

Even in the church, we can fall in love with convenience, settling for what is easy rather than pursuing what is meaningful.

This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our faith and our spiritual formation.

Gathering together for worship,  
being with one another in a shared space — this matters.

현대 문화의 전염성 이 모든 것은 지리적 위치와 물리적 존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세상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올라감'이나 함께하는 여정의 개념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자율적인 편의성에 중심을 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고, 어디서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가상 회의에 참석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솔직히 저도 이러한 편의성의 이점들을 인정합니다. 저 역시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의도치 않은 결과들도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회적 결속력, 이웃과 교회에서 나누는 유대감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위험이 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공동체를 포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정을 피하고, 가능한 효율성과 지름길만을 찾으려 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편리함에 빠져들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쉬운 것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한 공간에 존재하는 것 — 이것은 중요합니다.

**STORY:**

*Last Sunday, I met a young man from Hubbard who has attended our services online for over a year. He showed me his notes and screen grabs from the sermons, and it was clear that he was deeply engaged. However, last Sunday was only his second time attending in person, and the joy radiating from him was amazing. He even asked to take a selfie with me! As we spoke, he shared that he had made a decision: from now on, he would attend in person. Why? Because he had experienced the profound truth that “going up” together matters.*

The journey matters — to us and to God.

**Help for Our Journey: Psalm 121**

This brings us to our focus for today  
— Psalm 121, one of the first Songs of Ascent.

It's a song about help along the journey.

It's a reminder that as we "go up," we don't go alone.

이야기: 지난 주일, 저는 허버드에서 온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저희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석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들으며 적어둔 메모와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는데, 그가 얼마나 깊이 참여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은 그가 직접 참석한 지 두 번째에 불과했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은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저와 함께 셀카를 찍자고까지 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는 한 가지 결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참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함께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깊은 진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정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위한 도움: 시편 121편 이제 오늘의 초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인 시편 121편입니다.

이것은 여정에서 받는 도움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의 "올라감"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노래입니다.

Let's read our text:

*Psalm 121*

*A Song of Ascent*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He will not let your foot slip—  
he who watches over you will not slumber;  
indeed, he who watches over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The Lord watches over you—  
the Lord is your shade at your right hand;  
the sun will not harm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he will watch over your life;  
the Lord will watch over your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more.*

Psalms 121 begins with a question: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This isn't just a rhetorical question; it's deeply introspective.

Before asking it, the psalmist looks up at the mountains  
and wonders whether they are a source of help or danger.  
In ancient Israel, mountains were both.  
They were places of refuge but also hiding spots for bandits.

So, there is a tension in the psalmist's question.  
A mixture of anxiety and anticipation.

Isn't that how life feels most of the time?  
We move forward through life with hope in Jesus, for sure.  
But, also with some anxiety, knowing challenges are part of the journey.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키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니라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시편 기자는 산을 바라보며 그곳이 도움의 원천인지,  
아니면 위험의 원천인지 궁금해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은 피난처이기도 했지만, 도둑들이 숨어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의 질문에는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삶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정에는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약간의 불안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STORY:**

*For example, when a new child is born, we feel both anticipation and anxiety. I remember when my granddaughter Phia was born after a long, 40-hour labor. The anticipation of becoming a grandfather was overwhelming, but so was the anxiety as the hours of labor dragged on. Thankfully, Phia was born healthy, but in those moments of waiting, I cried out to God for help, feeling both anxiety and anticipation.*

The psalmist resolves this tension in verse 2, declaring: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Notice: this is not just any help. It’s not generic. It’s not impersonal. It is help from the One who created everything.

The Hebrew word for “help” here is *ezer*.  
It’s often used in the Bible to describe God’s rescuing power.  
It’s the same word used in Genesis to describe Eve as Adam’s “helper.”  
But more often, it describes God as Israel’s rescuer.  
Throughout our journey, God is our *ezer*, our strong aid.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는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제 손녀 피아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무려 40시간의 긴 진통 끝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된다는 기대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불안감도 마찬가지로 컸습니다. 다행히 피아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그 기다림의 순간들 속에서 저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 긴장을 해결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일반적이거나 무관심한 도움도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바로 그분의 도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에셀(*ezer*)’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이브를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더 자주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에셀, 곧 강한 도움입니다.

**God Watches Over Us**

As the Psalm continues, the focus shifts.

The writer is no longer alone in his thoughts.  
A second voice enters, offering reassurance:  
“He will not let your foot slip. He...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This is a powerful reminder that God is not distant  
or detached from His people’s journey.  
He is with us always, watching over us.  
He is always alert, and always attentive to us.

Whenever I read these verses, I think of Jesus.  
In the Gospels, we see Jesus watching over His disciples,  
even when they are unaware.

One story that comes to mind from Mark’s Gospel.  
In chapter six, Jesus sends His disciples on ahead of Him  
across the sea of Galilee.  
That night, they’re struggling against a storm,  
While this is happening, Jesus watches them *from a mountain!*  
He’s not sleeping up there.  
He’s praying and keeping an eye on them.

When He sees they’re in trouble, He walks out on the water.  
They see Him. They cry out in their fear and distress.  
Immediately, He gets in the boat and calms the storm.

Jesus didn’t stay distant. He didn’t stay on the mountain.  
He entered into the chaos of *their* storm and brought peace.

In the same way, He will enter our storms, our struggles,  
and our journeys to bring peace — if we cry out to Him.  
He will always be our watchful *ezer*.

### **The Lord is *Your* Shade**

The Psalm then moves to even more personal language:  
“The Lord is *your* shade at *your* right hand.”

This is not just about physical protection from the sun’s heat.  
It’s a metaphor for God’s intimate care.  
In ancient times, shade was precious, a relief from the scorching heat.  
God provides that kind of relief for us—not just from physical harm,  
but from the emotional and spiritual “heat” we face in life.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이 계속되면서 초점이 바뀝니다. 시편  
기자는 더 이상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가  
등장하여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그가 너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여정에서 결코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하지 않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깨어 계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날 밤, 그들은 폭풍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외칩니다. 즉시,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까. 산 위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폭풍의 혼돈 속으로 들어오셔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폭풍,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여정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평화를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에펠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와는 너의 그늘이시라 그 다음, 시편은 더욱 개인적인 언어로 전환됩니다: “여호와와는 너의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이것은 단순히 태양의 열기로부터의 물리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늘은 귀중한 것이었고, 뜨거운 열기에서 벗어나는 안식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주십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감정적, 영적인 “열기”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STORY:**

*I experienced this kind of care through Pastor Mark Nicklas. We've been friends for decades, but in the busyness of life, we had drifted apart a bit.*

*One day, God challenged me to reconnect with him, and when I did,  
I was able to share some deep hurts I had been carrying.  
Mark listened, and he reframed my pain in a way that brought healing!  
He reminded me that the vulnerability that had allowed me to be hurt  
was also a gift, something I could offer back to God.  
In that moment, Mark was like the shade God provided,  
protecting me from the heat of self-recrimination.*

The psalmist goes on to say: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As we consider this promise, it’s important to note:

“harm” is often translated as “evil.”

It’s the same word from Genesis 2: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s I sat with this, I asked God, ‘How have you kept me from evil?’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크 니콜라스 목사님을 통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지만, 삶의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 멀어졌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와 다시 연락하라는 도전을 주셨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깊은 상처를 그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크는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저의 고통을 치유의 방식으로 재구성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처받을 수 있었던 그 취약함이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크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늘과 같았으며, 자책의 열기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 주시리라...”

이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재난"이라는 단어가 종종 “악”으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악"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까?'

**STORY:**

*He reminded me of an important conversation I had with my counselor.  
I was lamenting the fact that my dad always seemed closer to my  
younger brother. It was like this circle with room for only two people.  
That same brother is going through a very rough time right now.*

*It's not pretty. Evil wants to destroy him. I believe my dad could see that possibility, even all those years ago. So, he tried his best to wrap his arms around my brother and protect him. And, here's what my counselor said to me: "Did you ever consider that the reason you weren't in that circle is because God was keeping you from the evil your brother suffered?"*

*The harm my brother suffered was the price of entry into that circle. God spared me that. He kept me from evil.*

That protection doesn't include everything that causes us pain, physically or emotionally, but God does fight the evil that seeks to destroy us.

**STORY:**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담사와 나눈 중요한 대화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항상 제 남동생에게 더 가까워 보였다는 사실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원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남동생은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악이 그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그 가능성을 이미 수년 전부터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 동생을 안아주고 보호하려고 노력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 상담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원 안에 있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생이 겪었던 악으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제 동생이 겪었던 고통은 그 원에 들어가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로부터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보호는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모두 없애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악과 싸우고 계십니다.

#### **A Final Encouragement (Keys here)**

As we close today, I want to leave you with this:

God cares about where you're going.

He cares about your journey, both as an individual and as part of our church community.

He is always watching over your "coming and goings."

So, gaze back at Him.

Keep your eyes on Jesus, the source and perfecter of your faith.

Pay attention to the rhythms of your life, to the moments when gathering for worship feels like a burden

or when prayer feels like a duty.

Ask the Holy Spirit to search your heart and lead you back to a place of delight in His presence.

We are on this journey together.  
And it is a beautiful thing when we go up **together**.  
We mustn't isolate ourselves.  
We must not trade community for convenience.  
Don't be afraid to look for God's care in the faces of those around you. Most often, the help you need will come through wise and godly people that God places in your life.

So let's keep going up together,  
trusting that God will watch over us every step of the way.

Let's pray.

마지막 격려 (핵심 사항) 오늘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여정에, 개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고 감”을 항상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리듬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배를 위한 모임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나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를 살펴보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기쁨의 장소로 다시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올라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편리함을 위해 공동체를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도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배치하신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계속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매 걸음마다 우리를 지켜보실 것임을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PRAYER TEAM, “DON”T LEAVE...”**